

一級外國人과 第三國人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이른바 名勝地를 비롯해서 거리, 호텔, 이르는 곳마다 日本人들로 붐빈다. 어떤 食堂에서 十餘名이 회의 중이었는데 샅시간에 그 홀이 滿員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日本人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안방인양 日語로 放聲大笑하는 통에 우리는 빨리 일을 끝내고 비슬 비슬 물러나와야 했다. 순간 나는 내가 日本 땅에 왔나 하는 생각을 했다. 分明히 오늘은 28년이란 過去는 없었던 것처럼 45—73년이 직결된 것 같다. 해방 당시 한국에서 저들이 물러나야 할 때 어떤 日人이 10年後에 다시 만나자고 誇言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팔시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겠으나 自信있는 한 國民의 패기였을 것인데, 期日이야 어찌 됐든지 그의 말은 적중된 셈이다.

저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대해서는 敗戰國이라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으며 그렇다고 過去의 그들의 행패에 대한 悔悟에서 오는 겸손을 나타낸 일도 없다. 그들이 물러간지 不過 5年만에 우리는 戰亂으로 이땅은 거의 초토화되고 國民 전체가 傷處와 기아에서 헤매게 됐을 때, 저들은 우리의 不幸을 이용해서 一躍 富國의 기틀을 장만하게 되므로 재

安

炳

茂

神傳·韓神大教授

빨리 强者의 表情을 되찾았든 것이다.

이제 저들은 한국땅을 强者요 勝者로서 다시 밟기 시작했다. 저들은 한국땅에 와서도 서슴지 않고 日語를 「強要」하며 마치 우리가 日語를 알아야 할 의무라도 가진 國民 대하듯 한다.

우리에게 대한 1900年初의 저들과 오늘날 저들의 자세는 무엇이 다른지? 다른 것이 있다면 「武力」이 「經濟力」으로 바뀌진 정도가 아닐까?

그보다 앞서 우울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세다. 아무리 商術이라고는 하지만 가는 곳마다. 日語로 된 表記요 日本語교본, 日本語講習所, 日式食堂, 日語科 이제는 政府로부터 日語敎本이 정식으로 나온 형편이다. 日人들의 주변에는 유창한 日語를 시위하는 韓人들이 줄달아 따르고 있다. 이러다간 멀지 않아 또다시 「기모노」 「하오리」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韓人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하여간 日人은 우리 땅에서 一級外國人으로 대환영 받고 있다. 1900년초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武力의 빈곤을 이유로 저들을 끌어 드렸고 지금은 經濟 빈곤 때문에 저들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해방당시 韓國사람들이 저들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우리 民族性的의 寬容性的의 발로라고 한 論者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對日人 태도도 그렇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忘却의 重病에 걸린 民族이라고 봐야 하나?

그런데 우리는 過去의 日人을 문제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日人들의 對韓國人 태도를 보고 있다.

日本에 사는 60萬의 韓國人을 저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在韓日人은 一級外國人인데 대해서 在日 韓國人은 이른바 第三國人이다. 이것은 저들이 붙인 이름이다. 第三國人이란 外國人도 아니요, 그렇

안병무 컬럼

다고 日本人도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日帝時의 日本人의 이름과 말을 強要하여 이른바 「皇民」이라고 하면서도 絶對로 日人 취급을 하지않은 침략자의 植民地人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延長한 것이다. 이 第三國人을 저들은 어떻게 학대하는가?

最近에 在日僑胞중 永住權을 가진 青年이 日本에 저명한 企業體에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入社試驗에 當當히 合格했으나 韓國人임을 안 그 業體는 그의 合格을 취소했다. 이에 이 青年은 民族差別에 대한 不義에 抗拒한 것이다. 그의 이 抗拒의 理由가 訴効되어 마침내 세계 기독교연합회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받으면서 투쟁 중에 있다. 그런데 이 業體는 民族差別 때문이 아니라 그가 韓人이면서 日本人 이름을 使用했기 때문에 그 人間性문제로 入社를 거부했다는 主張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로 度外視한 억지다. 日帝時 韓國人에게 日本이름을 強要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오늘의 在日僑胞가 왜 日本人 행세를 해야 하느냐 하는 理由를 묵살한 것이다. 日本人으로 행세하지 않으면 生存權을 유지 할 수 없도록 된 日人들의 철저한 韓國人 배척과 멸시에 대해서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들이 韓國人을 멸시하는 理由를 저들 나름대로 풀이한다. 在日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反社會的인 存在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日人 중 대부분이 왜 韓國인들이 그땅에 머물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解放 이후 210萬의 한국인이 그땅에 있었는데 저들은 모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오늘의 저들은 150萬이 해방과 더불어 귀환한 나머지에 불과하다. 실사 이들이 반사회적 集團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바로 日人자신들의 수치스러운 歷史의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들의 멸시와 소외에 못이겨 殺人劇을 벌인 일이

나 또 어떤 大學生의 경우 처럼 스스로 燒身해 버리는 것 같은 일이 간혹 일어났을 때 저들의 輿論은 어디로 向했는가?

나는 이땅에 범람하고 있는 日人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다. 個人으로 만났을 때 저들은 그들 特有的 미소와 겸손을 보인다. 그러나 저들의 미소와 「親韓」의 修辭를 額面대로 받을 수 없다. 까닭은 저들의 過去의 罪過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재일교포에게 저들이 어떤 얼굴과 心情으로 대할 것인가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들을 탄핵서 무엇하랴 문제는 第三國人 밖에 못되는 우리의 못남이 문제다. 나는 在日僑胞를 생각하면 언제나 간디를 생각한다. 그것은 그것이 바로 간디와 같은 人物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디가 아프리카에 잠깐의 업무차 갔다가 그 民族이 英國人들에게 當하는 멸시와 차별을 봤을 때 그는 거기서 一生의 과제를 發見했던 것이다. 그것은 좁은 意味의 民族主義運動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人權을 위한 투쟁이었다. 人權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자기 人權을 찾는 길은 自重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는 自國人の 적개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할 것을 호소하고 그러므로써 가져야 할 權利를 주장했던 것이다. 人權을 유린하는 것은 絕對者의 領域을 침범하는 것이며 同時에 自己를 멸시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간디가 英國人에게 印度人의 人權을 존중할 것을 호소한 것은 同時에 英國人을 위하는 일이라고 반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는 그에게 非暴力的 抵抗이라는 智慧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한구석에서 發生한 不義에 대한 그의 저항운동은 마침내 世界人類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第三國人」의 소외 상황에서는 간디가 났는데 왜 日本땅의 第三國人 틈에서는 간디가 나지 못할까?